

新小說「話中話」의 性格과 그 意味

이 동 길

<목 차>

- | | |
|---------------|-----------|
| 1. 序言 | 3. 文學的 意義 |
| 2. 作品의 構造的 分析 | 4. 結論 |

1. 序 言

신소설 「화중화」¹⁾는 「花의 血」과 더불어 1910년대 신소설 가운데서 類가 다른 작품이다. 그것은 1910년대 대개의 신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 전개방식에서는 고소설의 유형을 답습한 것이었는데 비해 「화중화」는 그와 같은 유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소설 「화중화」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판소리계 소설인 「春香傳」과 닮아 있으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용을 현실화하면서 또 다른 면모로 형상화되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기성세대인 변사도와 의 대결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보편적 조건을 문제삼고 그것을 이도령의 암행어사 출도란 초현실적인 논리로써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이 마땅히 어떠한지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화중화」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현실에서의 높은 장벽 때문에 실현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스스로 죽음으로써 끝맺고 있다. 인간다운 삶의 보편적 조건으로서 신분 해방이란 차원에서 「화중화」는 「춘향전」과 닮아 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이 자신의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고 행동으로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자아동일성의 성취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경험적인 논리에서 전개하고 있어서 이전 고소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액자소설

1) 1912년 光東書局에서 발행되었다.

2 嶺南語文學(第14輯)

의 형태로서 짜고 있어 당대 현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²⁾에선 주로 內話인 초월의 일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外話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 내재한 의미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된다.

2. 作品의 構造的 分析

2.1. 外話의 의미

「화중화」는 창랑자라는 인물이 山川風土와 人情物態를 알기 위해서 전국을 유람하다가 평양에서 어떤 초부에게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작품 전체는 창랑자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보고 느낀 바가 처음 서술된 후 그 속에 초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창랑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外話라고 하고 초부가 말하는 부분을 內話라 하여 각각 그 내용을 살펴 본 후 外話와 內話와의 관계를 살펴 본다.

경성 삼청동에 사는 창랑자는 책만 읽는 선비인데, 어느 달 밝은 가을 밤을 당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위연이 탄식하고 있다.

남아가 세상에 나서 희의유람은 고사하고 우물안 고기와 갖치 문밖 단 십리도 나가보지 못하였스니 산천풍토(山川風土)와 인정물태(人情物態)를 어이 알 수 있스리오 다행이 지금은 괴초와 괴선이 낙역부절(絡繹不絕)하고 또 절기도 불한불열(不寒不熱)하야 여형하기 맛당하니 리일브티 발정하야 십삼도의 명산대천을 구경하겠다.³⁾

창랑자가 십삼도의 명산대천을 구경하는 이유가 산천풍토와 인정물태를 알기 위해서이다. 산천풍토와 인정물태는 세상의 형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전엔 세상의 형편을 아는데 해외유람을 하고 전국을 구경해야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세상의 형편은 孔孟程朱를 으뜸으로 삼아 그 이치를 궁구하여 깨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전엔 남아가 책을 읽음에 孔孟程朱를 으뜸으로 삼

2) 朴希子, <新小說〈話中話〉攷>, 啓明大, 啓明 3집, 1969.

金教鳳, <신소설의 叙事樣式과 主題意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6, pp. 55~57.

3) 화중화, p. 1.

아 그 이치를 궁구하여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알고 나아가 忠孝를 결전하고 立身揚名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겨 족했다. 그런데 여기 창랑자는 충효나 입신양명을 걱정하기 보다 해위유람을 먼저 들고 있고 문 밖의 견문 없음을 걱정하고 있으니 세상의 형편과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은 기차와 기선이 달리는 근대 과학문명으로 변화된 세상이고 이전의 생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선 공맹정주를 으뜸으로 삼기 보다 해위유람을 통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고, 세상의 형편을 아는 것은 공맹정주의 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창랑자는 인식하고 있다. 세상은 이전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고 이미 관념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다 바르고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엔 경험에 의한 지식과 그에 따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창랑자는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창랑자가 기차를 타고 남한 일대를 구경한 세상은 物貨가 번성하고 사람들이 활기에 넘치는 것 같다. 京城의 목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은 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물화가 폭주하고 人家가 즐비하며, 영남 내륙지방 교통의 요로인 낙동강을 끼고 있는 왜관은 조선 제일의 상업지로서의 면모를 아낌 없이 드러내고 있고, 외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부산은 크고 적은 배들로 가득하고 큰 상점과 공장이 들어서 길거리에는 먼지가 끊일 적이 없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시발점이던 成歡을 돌아보면서 외세에 의해 나라가 유린된 이후의 역사를 생각하고 다시 경성의 목인 용산을 일본군 사령부가 장악하여 그 목을 누르고 있는 것과 연결하면서 그 변화하고 번성하던 것이 일본에 예속되어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日인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창랑자는 기차여행을 포기하고 이번엔 걸어서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다. 기차로 한 여행은 그 속까지 찬찬히 살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걸음으로 드러난 것만 살필 수밖에 없었기에 풍속과 세상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기 위해 여행방법을 바꾸었다.

도보여행에서 창랑자는 여유를 갖고 중요한 역사와 직접 대할 수 있었고, 수첩에 기록까지 해야 할만큼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실과 이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접하게 된다. 그리고 도회지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고려의 古都인 개성을 돌아보면서 만월대를 통해 지난 날의 영화와 번영을 떠올리고 선죽교를 보면서 조상의 얼을 기리게 된다. 그것은 특히 이달원이란 사람이 봉산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4 嶺南語文學(第14輯)

만년에 봉양원을 설립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그것이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는 또한 단기 이래 수천년 고도이며 조선의 서경이라 하는 평양에 도달하면서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그 속에 내재해 면면히 지속되어 오는 그 일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기자릉에 참배하고 대동강 주변의 절경에 도회지에서 가져 보지 못한 깊은 감회에 젖게 된다.

그러다가 ‘사람직분 행해 보세’하는 樵夫의 노래에 매료되어 그 노래에 얽힌 사연을 듣고자 초부와 만나 얘기하게 된다. 그런데 초부와 의 대화에서 초부를 가볍게 보고 쉽게 대하려던 유식한 창랑자의 자세가 역전된다. 창랑자가 그 무덤의 <역사>를 듣자고 청하니 초부의 대답이

(초부) 여보시오 렉스라니 삼국사 말씀이오 고려스 말씀이오 혹 본조스 말씀이오 드르시려거든 문안드려서 디성학교를 차져가서 자세히 무르시오 우리 초부들이 무슨 렉스를 똑똑이 알겠소.

(창랑자) 아니요 학교에 가서 무를 렉스가 아니라 이 무덤의 렉스 말씀이오.

(초부) 허허 그 양반 일너드려도 그리헌데 여보시오 무덤력스라는 스키도 어찌 잇단 말씀이오.

(창랑자) 네 그러헌면 그 무덤의 리력 말씀이오.”

라고 하며 내받고 만다.

초부는 歷史와 來歷을 구분해서 말하며 자기는 역사와 같은 거창한 것보다 단순한 얘기에 불과한 것밖에 모른다고 하나 역사와 내력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삼국사 고려사 등과 같은 史記는 문안 대성학교에 가서 무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자세이다. 역사는 유식한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존재 근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식한 사람이 어느 한 지방에 떠도는 얘기인 무덤의 내력을 역사와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유식한 사람이 자신의 근거지인 나라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직분일텐데 도리어 나라를 망하게 해 놓았으니 나라라는 그런 거창한 말을 몰라도 <사람의 직분>을 지켜 사람다운 삶을 사는 무식한 초부보다 못하지 않느냐는 태도이다. 창랑자도 초부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까지 해서 그 내력을 듣자고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사람의 직분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과 서도를 여행

4) 화중화, p. 6.

하면서 가진 생각도 나라의 형편과 자신의 직분에 대한 것이었으니 창랑자가 지냈던 초부에 대한 애초의 태도가 역전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창랑자는 초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절단 알고 속을 알지 못한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니 창랑자가 앞에서 세상의 형편을 알기 위해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식 일반에 대한 선협적인 태도의 비판이면서 한편 당시 亡國이란 엄청난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것만 보지 말고 과거의 것을 살펴 우리의 얼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에 대한 역설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실상이고 허상인지를 살피고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인식하게 한다.

2.2. 內話의 의미

내화는 초부들이 얘기하는 무덤의 내력으로 기생 유초월의 삶의 행적이다. 초월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기녀 박소사의 수양녀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기생이 된다. 초월은 재질이 영민하여 가무와 시화가 뛰어나고 수양모를 받든에 지성으로 하며 기생으로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보는 자마다 칭찬받는 자가 없다. (p.9)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고 수양모가 허락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童妓로 있다.

그러나 초월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처지이기에 평양 巨富의 아들이란 소리에 박소사가 혹하여 허락한 김해봉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게 된다. 김해봉은 부자의 아들로서 집안은 돌보지 않고 놀기에 골몰하다가 초월을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거기에다가 부모까지 죽게 됨으로써 점차 궁하게 되어 박소사의 미움을 받게 된다. 박소사는 궁하게 된 김해봉을 떼쳐 버리려던 중, 평양감영의 최비장이 김해봉을 인장위조죄로 몰아 구금하고 박소사를 위협하여 초월을 요구하자 박소사는 허락한다. 최비장은 초월의 미색을 탐하기 위해 권세로서 유혹하고 그것이 안되자 힘으로써 제압하려 하나 초월의 단호한 거절과 죽음을 돌보지 않는 완강한 저항에 실패한다. 그와 동시에 김해봉의 친구 정분해가 이 사실을 평양감사에게 고발하여, 사육을 채우기 위해 公事를 날조한 최비장과 이익만을 탐해 최비장에게 동조한 박소사가 구금됨으로써 초월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김해봉은 감옥에서 풀

러나게 된다.

그런데 김해봉은 죽음을 돌보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초월과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에서 살아나게 된 것에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하고 의로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 본처를 생각하여 본가로 돌아갈 것을 초월에게 말한다.

여기서 초월은 평소에 본가를 돌보라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제 와서 본가로 돌아가겠다는 김해봉에 대해, “가산 폐가 후로 지우금 일초도 아니가셨다 하오니 사람의 도례에 그런 무정혼 일이 어디 잇소리가 옛글에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 하오니 설혹 좀 미혼혼 일이 있셔도 그리 못할 것인데 무정혼 부인을 의무주장으로 해포를 도라보지 아니 하섯스니 그 고성이 오작하며 그 원망이 엇덧켓소 밧비 차져가시와 집안을 정돈하신 연후에 첩을 바리시지 아니 하시깃습거든 추후 쏘 더러가시옵소서……”⁵⁾라고 말하고 있다. 초월은 처음부터 자신이 한 남편을 혼자 섬기면서 몇몇하게 한 평생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비록 첩으로서나마 한 남자를 사랑하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기에 초월은 최비장이 세력과 힘으로 위협하자 “새상에 충효와 절의도 귀천이 잇소 정실이라도 절개업는 스흘 오작 마느며 천인이라도 의리잇는 스흘 옷지 적스오릿가 이몸이 비록 팔즈가 사오나와 창기의 일홈을 미왕 드릿사오이다마는 초야에 김희봉 만나 지우금 금수의 힘위는 아니 헛소”⁶⁾하며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초월은 현재의 사회제도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남편 김해봉이 본가와 본처를 원만히 잘 돌보면서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설사 현실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만은 그러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 가면 인간다운 삶을 이룩할 수 있으리란 소박한 믿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켰다. 그것은 당대의 윤리규범 속에도 있기에 초월은 의심없이 기존 윤리규범에 따랐다.

그러나 자신을 길러준 수양모 박소사마저 딸을 이익의 도구로서 보았지 진정한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고 있고 기존 윤리규범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

5) 화중화, p. 40.

6) 화중화, p. 31.

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최비장까지 公權을 이용하여 私欲을 채우고자 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초월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부녀간의 의를 맺고서도 그 스스로 그것을 저버리는 모순된 현실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권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을 사육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초월은 기존의 윤리규범을 더 나아가 삶의 의미까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孝, 貞節 등 당연한 기존의 윤리규범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의미있게 하는 방향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수양모 박소사의 삼년상을 마치고 난 다음 죽기를 결심하는 말에서 나타난다.

천첩이 팔조기박항야 조실부모하고 창기의 일흠을 띄어 종당에 신세를 맞출것을 다형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 유덕하신 군주를 만나 바리시지 아니함점으로 지우금 안락을 누리오니 턱산갓흔 은덕 심전에 엇지 다 감소섯가 그러나 이몸으로 인하여 귀위 여러사람을 죽인지라 비록 저의들의 죄이지마는 천첩 곳 업섯드면 그런 일이 엇지 발생하였사오릿가 다형이 원수를 잡고 존문에 드러온지라 곳 진심을 표하여 일일이라도 천첩 일흠을 사름에게 듯지아니하려 하였습더니 그뉘 당시에는 귀덕 사세도 말이 아니옵고 또한 오르나 그러나 양육하던 슈양모의 종년을 못맞추어 못그림을 달게춤고 고심을 참어 견디여 금일까지 이르다가 이제는 다형이 마음과 갖고 뜻과갓혀 서방님께옵서는 전일 부귀를 다시 누리시고 천첩은 죽은 어미의 습년 초토를 정성껏 맞초였스니 소원을 한업시 이문지라 이제 만일 더살고보면 첩의 천흔 일흠만 더드를 것이오또 일후 의리업는 창기비의 구실(口實)을 면치 못하겠사오니 잠시 사정을 심각치마옵시고 첩에 소성 두 아회 잇사오니 만일 그 어미의 박덕함으로 그 자식을 무어하시지 아느시면 첩이 디하에 드러가도 결코보은 한것사오니……” (밑줄은 필자가 가함)

초월은 최비장의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대 인간다운 삶의 기반인 유교이념에 따라 생활해 왔다. 그러나 최비장의 사건과 그로 인한 김해봉의 마음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 더욱 절실히 생각하게 되고 사회제도의 높은 장벽 때문에 죽을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지금까

7) 화중화, pp. 47~48.

지 초월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섬기며 정절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행해 왔는데 죽게 된다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남편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며 남편의 재산을 탕진시켰다는 더러운 이름만 남기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져 이제까지의 삶의 의미를 없이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제까지 지켜온 삶의 의미를 있게 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초월은 박소사가 살아 있을 때까지 살면서 김해봉의 재산을 늘리는 데 갖은 노력을 다 기우리고 수양모 박소사가 죽자 삼년상까지 정성스럽게 치렀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과 자신의 존재의미를 이룩하려는 <마음>과 같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뜻>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려고 결심한 것이다. 초월은 인간다운 삶의 기반인 유고이념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따르던 것에서 자각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깊이 의식하여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할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제도와 관습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의 더 이상의 삶은 초월에게 첩이란 육된 이름과 구속된 삶만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리없는 창기배의 구실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존재의의의 구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다. 초월은 사람의 직분을 다하고도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없음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지킨 것이다. 초월은 그 길만이 自我의 同一性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결국 내화에선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삶의 의미와 그 기반이 어떠한지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2.3 외화와 내화의 관계, 그 의미와 기능

외화와 내화를 줄거리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단락지어 나타내면 다음 도식과 같다.

외 화	{	① 기차여행(일인이 판치는 세상)	결
		② 도보여행(민족 혼의 면면한 지속을 확인)	속
		③ 창랑자의 초부에 대한 인식 I(무시)	결
		④ 창랑자의 초부에 대한 인식 II(놀람)	속
		내 화 : ⑤ 초월의 일생(인간다운 삶의 구현).....	속
		외 화 : ⑥ 창랑자의 고뇌 ⁸⁾	결 · 속

8) 이 부분은 창랑자가 초부로부터 초월의 얘기를 듣고 난 후 경성에 올라와 이던 얘기를 신문에 공포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거기서 창랑자는 이 무덤의 내력을 굳이 '력사'라고 말하고 있고 신문에까지 공포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창랑자가 경성에 올라온 후 다시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난다 하더라도, 창랑자는 사람(자신)의 직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알항에서 살핀 외화와 내화의 의미에서처럼 외화는 창랑자가 세상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현실의 실상을 밝혀가는 과정이고 내화는 그 현실의 실상을 통해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외화와 내화는 결과 속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외화는 ①과 ②의 대응관계에서 현실의 형편과 그것에 가려진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③과 ④의 대응관계에서 창랑자와 같은 지식층의 평민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태도와 초부와 같은 기층의 주체적인 인식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일제에 감점되어 있는 현실에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묻고 있다. 겉으로의 현실은 ②는 ①에 의해 부정되고 ④는 ③에 의해 부정되고 있지만 ①과 ②, ③과 ④의 대조와 역설을 통해 ①은 ②에 의해 부정되고 ③은 ④에 의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①③과 같은 현실에서 ②④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의 요구는 ⑤의 의미를 한정하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화에서 내화의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내화가 역사적인 의미를 띠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내화에 이야기의 촛점이 집중되도록 하는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관계이다.

「화중화」는 이처럼 額字小說의 형태⁹⁾를 이용하여 내화의 의미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한 도입부인 외화가 여기서는 단순한 도입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화의 의미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창랑자의 탄식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태도 그리고 초월의 삶은 나라가 망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로서 우리의 삶을 이룩해가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에 다른 아니다. 따라서 냉혹하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야 할 힘을 찾게 하고, 그 힘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어떤 자세를 통해 그것이 가능한가를 살피게 하고 있다.

창랑자는 단기 이래의 우리의 시조와 과거의 지내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풍습이 지켜지고 있는 것에서 또한 현재 이달원이란 사람이 그런 정선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그것에서 현실의 모순을

9) “額字小說은 대개 主觀의으로 얘기된 事件을, 때로는 이야기된 것을 熟考하도록 가르쳐 주는 의도로, 또 때로는 그것을 歷史의 퍼스펙티브에 두기 위해서 客觀의 거터도 옮긴다.”(李在鉉: 『韓國開化期小說研究』, p. 277, 재인용)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내면에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고 앞으로도 계속될 정신이고 현재 비록 일제가 강점하여 우리 민족이 위축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정신이다. 그리고 그 힘과 정신은 이달원과 같은 유지인사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닌 초부에서조차 자기의 존재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데서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갓 나뭇꾼에 지나지 않지만 역사와 단순한 내력을 구분하는 태도와 사람의 직분을 다한 초월의 삶에 대한 기림에서 삶의 근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것은 더 나아가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며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태도이다.

「화중화」가 발표된 시기는 1912년으로 이미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여 무단정치를 자행하고 있던 시기이다.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그것을 드러내는 매체를 나타내는 일들을 없애고¹⁰⁾ 우리의 역사를 비주체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왜곡하여 그것이 숙명적인 것처럼 합리화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역사의 주체자로서 이전의 명분과 규범만 고수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은 변해 弱肉強食의 힘의 논리에 따르는 제국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존의 윤리규범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무리가 생겨나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존재의 기반을 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면화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봉건제적 규범만 고수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확보하려는 보수적 집단처럼 기존의 윤리규범을 경직되게 고수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윤리규범의 근본이념에 상반되는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로서 개체는 창랑자처럼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을 통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존재의 근거를 확보하게 해 주는 기존의 윤리규범의 근본된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과 맞서 싸워 실현하는 데서 주체적이고 온전한 삶을 이룩할 수 있다. 이것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서 그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이다.

그러기에 작품에서 창랑자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다운

10) 「대한매일신보」·「진한민보」 등 대중전달매체를 폐쇄하거나 압수하고 한편으로 의병전쟁을 국내에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도록 한 것, 그리고 105인 사건과 같은 것이 그 드러난 예들이다. (姜在彦: 「韓國의 開化思想」, 比峰出版社, 1984)

삶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지킨 초월의 삶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반문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게 하는 윤리규범을 지켜도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다운 삶이게 하는 것을 찾아 끝까지 지키므로써 스스로 사람다운 삶을 드러내자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람다운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룩해 가는 것이며, 개체의 자아동일성의 확보를 통해 개체의 존재의미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화중화」는 외화와 내화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3. 文學的 意義

신소설 「화중화」에서 초월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존재의 확보와 그 의미구현은 문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화중화」에서는 이 문제를 현실의 경험적인 논리에서 전개하여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존의 윤리규범에 관념적으로 귀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화중화」가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서의 변화된 인간관계를 포착하고, 그것을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로서 짜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현실에서의 변화된 인간관계는 작품에서 인물간의 대립관계로서 나타내게 되는데, 「화중화」에서는 「초월과 김해봉과 박소사·최비장과의 三元關係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 규범(김해봉)과 이익(최비장·박소사) 그리고 그것에 비판적인 자아(초월)와의 관계로서, 이들 각각의 요소는 고소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요소이나 고소설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양상으로서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소설에서 인물간의 대립관계는 크게 보아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는 측과 개인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측의 대립이거나 한편으로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는 측과 기존규범의 모순되고 경직된 점을 비판하는 측과의 대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현실이 이미 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기존규범이 완강히 고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규범에 대한 문제가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외세의 엄청난 충격과 부정과 부패로 인한 사회의 혼란, 그리고 결국 亡國에까지 간 현실은 완강히 고수되고 있는 기존규범에서 벗어나 양자택일이 아닌 제 3의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지배계층의 부정과 부패로 그들의 존재근거인 이념적 기반을 그들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피지배계층인 민중으로 하여금 자아각성을 촉진하여 민중봉기와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거기에다가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침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이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힘과 그 힘을 뒷받침할 도덕적 기반을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그것은 작품에서 창랑자가 여행이란 경험을 통해 우리 민중의 본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듯이 자아각성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에서 그 요청에 부응할 수 있었고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확립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現實에 대한 認識의 變化와 그 認識의 深化에서 혼란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관점이 설정될 수 있고 그 현실을 발생케 한 인간관계를 포착할 수 있었다. 여기에 「화중화」가 古小說과는 다른 인간관계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까닭이 있다.

그러면서 외화에서 창랑자가 현실을 새로이 해 가는 과정이나 내화에서 초월의 삶의 과정 그리고 외화와 내화와의 관계가 논리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작품 전체의 짜임새와 사건의 전개가 합리적이고 현실적 인과논리에 따르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은 「화중화」의 사건구조가 현실의 사회구조와 相同性을 지니는 것에서 뒷받침된다. 김해봉이 방탕하게 생활하다 곤궁하게 되자 초월을 버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행위는 사람다운 삶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미 방탕한 삶에서 사람다운 삶이게 하는 기반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초월을 버리는 것은 아무리 본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나 이제까지의 행위에 모순을 가져와 그것 또한 사람다운 삶에서 벗어나 있다. 사람다운 삶이 올바른 가치기준의 정립과 그것의 일관된 실현을 통한 자아동일성의 성취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김해봉이 이제 와서 곤궁하게 된 초월을 버리고 기존규범을 지켜 본가로 돌아가는 것은 초월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안일을 취하는 것으로써 기존규범만 고수했지 자신과 초월과 본부인의 삶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기준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관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김해봉이 내세우는 기준윤리규범은 현실의 실상과 유리된 채 그 이름만

내세우게 되니 모순에 빠져 그 정당성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또한 박소사나 최비장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 이외의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기모순에 빠져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월은 자신을 부정하게 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할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규범만을 따를 수 없기에 그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옳다고 여기고 사람다운 삶이라고 여겨온 것을 끝까지 지켜 존재의 의미를 구현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김해봉과 박소사 최비장은 그들의 모순된 논리때문에 초월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된다. 그래서 「화중화」의 갈등구조는 이러한 三元의인 人間關係가 대포되고 있다. 그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돌보지 않고 침략하는 제국주의자의 잘못된 의식구조와 기존윤리규범을 고수하면서도 부정부패한 지배계층의 모순된 사고방식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신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구조와의 대립관계에서 설정되는 당대의 사회구조와 상동성을 이룬다. 이점에서 「화중화」는 사실성을 획득하게 되고 현실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근본문제인 변화된 현실에서의 자아동일성 성취를 통한 존재의의의 구현이란 문제를 경험적인 태도에서 해석하게 하여 전환기에서의 가치관의 정립과 그를 통한 절망적인 현실의 극복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액자소설의 형태를 이용하여 그 문제에 역사적인 조망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현실화하고 있다.

4. 結 論

1910년대 대개의 신소설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화중화」는 무단정치가 자행되는 식민지 치하의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액자형태를 이용하여 역사적인 관점을 확보함으로써 당대 현실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인 논리에 입각한 사건전개와 짜임새를 통해 유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체의 위치에서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문제삼고 그것의 구현을 통한 자아동일성의 성취를 중요문제로서 제기하여 전환기에서의 가치관의 정립과 절망적인 현실의 극복을 꾀하고 있다. 「화중화」의 이러한 점이 신소설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드러내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